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4호(통권 제92호, 2012 · 겨울호)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신 동 준**

국 | 문 | 요 | 약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맥락을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적 · 사회구조적 · 제도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가지 사회적 맥락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적 하위문화, 경제적 불평등, 공동체 분리라는 범죄 유발적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이들의 범죄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극복,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류 공동체와의 통합 강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과 저숙련 노동력 유입의 조절 등을 제시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며,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은 다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외국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향후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외국인 범죄,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다문화사회, 낙인,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

---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움 『세계화와 국제범죄』에서 “외국인 체류자 범죄 문제와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전지구적인 인구 이동이다. 특히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최근의 두드러진 추세로 보인다.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 노동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적 · 사회적으로 이들의 존재감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관심과 우려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문제에 쏠리고 있는 듯하다. 2009년에 발간된 범죄백서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동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특집 논문을 상당 지면을 할애하여 실은 바 있으며(법무연수원, 2009),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사건은 매스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루는 인기 있는 기사거리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관련 기사에 대해 매우 감정적인 댓글들이 그 어느 이슈보다도 많이 달린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터넷 상의 의견들을 접하다보면 마치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범죄 천국이고 흉악한 외국인들에 의해 선량한 내국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외국인 범죄의 발생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사회나 집단이라도 그 구성원들 중 일부는 범죄를 저지른다. 외국인들 중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유독 외국인들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범죄학의 통설이다. 예를 들면 주로 남자가 남자를, 젊은 층은 젊은 층을, 사회경제적 하층은 하층을, 소수인종은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현재 범죄통계의 미비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갖는 지위상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내국인에 의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무시 못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범죄건수는 27,436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1,815,233건의 약 1.5%에 해당한다(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2012). 한 편 같은 해에

체류 외국인 수는 1,395,077명으로(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2) 2010년 우리나라 총인구 47,990,761명(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2)의 2.9%에 해당한다. 즉 총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총범죄의 1.5% 정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개략적인 통계수치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범죄가 특별히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살인, 강도,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11년 총 25,346건 중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585건으로 2.3%에 해당하고, 폭력범죄는 총 392,042건 중 7,754건으로 약 2%, 절도범죄는 총 111,390건 중 1,757건으로 약 1.6%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 범죄의 건수를 봐도 역시 외국인의 범죄문제가 항간의 믿음처럼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국인 범죄문제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통계적 증거도 있다. 그것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인데 특히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적 심각한 범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편이다. 2001년 40건이었던 외국인 살인범죄 건수는 2011년 1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34건이던 강간은 308건으로 약 9배, 1,174건이던 폭력범죄는 7,830건으로 약 6.7배, 590건이던 절도범죄는 1,766건으로 약 3배, 113건이던 강도는 157건으로 약 1.4배로 증가했다(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2012). 지난 10년 사이에 죄종에 따라 많게는 9배까지 증가한 것이다. 2001년 566,835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 2.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건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외국인 범죄는 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까? 앞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해 질 것인가? 이 글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이미 김정규와 신동준(2011)의 논문에서 이민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범죄학 연구들이 폭 넓게 검토된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민과 범죄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가 일관되게 발견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민의 급증이 오히려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의 경우 대체로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결국 해당 사회

의 사회구조적 ·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민자 공동체와 토착 공동체의 성격과 이 둘 사이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정도, 노동시장의 성격과 구조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민과 범죄 사이의 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설명틀에 입각한 충분한 논의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외국인의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화적 · 사회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노동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설명의 틀로 삼아 외국인 범죄문제를 진단하고 전망할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갈등의 과정을 이방인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응과 그에 대한 이방인의 대응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한다. 범죄학과 사회학의 이론적 시각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외국인 범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범죄문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적 고려 사항까지 제시하려고 한다. 설명틀을 구성하는 작업의 출발점으로 우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는 사회적 원인들을 미시 범죄학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II. 외국인 범죄의 미시적 원인

범죄 의도를 갖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기회를 접할 가능성도 내국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범죄학이론을 참고하여 몇

1) 모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결심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생활에 투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죄행동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

가지 개인 수준의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유대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은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범죄학이론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유대의 약화와 긴장의 축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거시적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1. 사회유대 : 공동체와 노동현장

우선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의 시각에서 사회 유대의 약화를 외국인 범죄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유대의 형성에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대의 요소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대한 민감도로 정의된 애착(attachment)이 특히 중요하다. 범죄나 비행이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때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애착이 결여된 사람은 그러한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특히 가족과의 애착이 범죄나 비행의 통제기제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애착이라는 유대의 요소가 약화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기왕에 형성된 가족과의 애착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대의 요소 중 하나인 신념(belief)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허쉬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에 대한 신념은 주로 가족과의 애착을 통해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며, 이후 애착이 약화되어도 일단 이렇게 형성된 신념은 지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과의 애착과 신념이라는 유대의 요소가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약화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가족을 대신할 만한 친밀한 일차집단과 사회 활동의 영역인 직장을 통한 애착과 참여(involvement), 그리고 관여(committment)라는 유대의 요소가 외국

다. 따라서 범죄행동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억제이론의 틀에서 생각해 보아도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인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규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범죄와 비행 등의 반규범적 행동을 할 시간적 여유와 에너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범적 생활에의 참여가 통제력을 행사하게 된다(Hirschi, 1969: 22). 대표적인 규범적 행위는 직업 활동과 가족 활동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활동에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낯선 외국에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만큼 참여라는 유대의 요소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낯선 이국땅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출신국 사람들의 집단일 것이다. 2010년에 실시된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2)]에 따르면 모국인 친구나 친인척이 한국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44.5%에 이르는 반면, 한국인 친구나 직장동료 및 상사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120). 역시 2010년에 실시된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실태조사』[3)]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으로 자국인 친구나 친인척이 47.9%, 자국인 사회종교단체가 11.7%를 선택한 반면, 한국인 친구 · 동료 · 상사와 한국인 사회종교단체를 꼽은 이는 각각 6.4%와 2.8%에 머물고 있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 46).

그래서 외국인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와 통합이 외국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차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공동체는 서로 간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됨과 동시에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상호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새로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는 2010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967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적은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베트남이 18.9%, 인도네시아가 18.7%, 필리핀이 18.1%, 태국이 13.0%로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3)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는 2010년에 경인지역에 취업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출신 77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각 출신국이 13.7%~18.4% 사이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된다.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순조롭게 적응함으로써 범죄의 유혹과 뜻하지 않은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 사회유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직장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노동현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그가 낯선 나라에서 경험하는 우리나라 사람과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다. 직업 활동을 하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까운 동료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규범적 생활에 영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두 개의 조사에서 제시되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갖는 한국인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사회적 관계는 그리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와 관여의 측면에서도 직장은 중요하다. 만약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면 자신의 일과 직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직업적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관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만큼 규범적 생활로부터 심리적·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노동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일반 긴장: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장 환경에서 차별과 착취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한층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일반긴장이론은 범죄와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긴장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한다(Agnew, 1992; Agnew and White, 1992).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크게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제시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축적된 긴장은 분노와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축적을 낳고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일반긴장이론은 주장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긴장을 겪으며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긴장의 첫 번째 원인인 목표달성의 실패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긴장이 그것이다.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의 경우 달성하기 바라는 목표가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한 목표의 달성이 요원하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환경 등 바라던 목표가 있었으나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편견 등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실제 갖게 되는 기대는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큰 긴장을 겪을 수 있다. 혹은 어느 정도 현실화된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 또한 긴장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 것마저도 그것의 달성이 부당하게 좌절 될 때 큰 긴장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거나,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경우, 그것이 중요한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0.2%에 달하며, 차별의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거리나 동네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30.2%, 직장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44.9%에 이른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112-113). 또한『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 직장동료와 상사가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대우를 한다고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가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 28).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얕잡아본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3.6%, 피부색이나 인종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5.3%에 이른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 108-109).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7.6%인데, 한국인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더 많고 노동 강도가 더 심하다는 응답은 31.4%와 28.7%로 노동시간이 더 적다는 응답 10.8%와 노동 강도가 덜하다는 응답 12.1%보다 훨씬 많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75-76).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더 많다는 응답이 34.0%이고 작업량이 더 많다는 응답은 42.4%에 달하는 반면,

임금은 더 적다는 응답이 43%나 된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 29-30). 즉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일을 더하면서도 임금은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인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외국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본국의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겠다.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쉽게 본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나고 올 수 없는 상황이 외국인들의 긴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85.8%에 이른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6). 입국 후 모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41.1%이고,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1번 밖에 방문 못했다는 응답이 59.4%이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37).

세 번째 원인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가혹행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 11.6%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에 달하고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응답도 13.9%이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78-82).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32.9%가 직장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으며 3.6%가 폭행이나 체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 31-32). 불법체류자의 경우 특히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속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하는 상황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설동훈, 2009: 65-66).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많은 긴장을 느끼고 그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달 동안 우울함을 경험했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52.9%에 이른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 11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가혹행위, 그리고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시장의 결과로 불법체류하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 신분상의 불안이라는 긴장요인이 더해진다. 따라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외국인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외국인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I. 외국인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유대와 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공동체, 편견과 차별, 그리고 노동시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외국인 범죄문제는 바로 이 세 가지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소수의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가 중심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적 성격은 앞으로 다수의 이민자와 이민자 2세, 그리고 다문화가정 출신이 주축이 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동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외국인 범죄문제, 혹은 이민자 범죄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일 것이다.

1. 편견과 차별 : 낙인의 과정과 결과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필요로 한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진술은 범죄의 기능에 대한 뒤르케임의 주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Durkheim, 1938: 64-75). 사회의 유지에 사회구성원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도덕을 강하게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사회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의 도덕적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도덕과 규범의 원리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는 범죄와 일탈을 필요로 하고, 범죄와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려하고, 그들을 국외자(outsider)로 규정한다. 벡커에 따르면 국외자는 “타인들에게 일탈자라고 판정되어 집단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의 모임 밖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Becker, 1973: 15). 그리고 국외자에 대한 판정은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통 그 사회에서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국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국외자로 자리매김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방인은 외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리의 도덕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매우 강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간주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 이들을 국외자로 지명하려는 사회적 음모는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범죄행위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늘 있어왔던 범죄행위도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그러한 범죄행위가 유달리 흉폭하고 잔인한 형태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 심각한 범죄를 근거로 해서 전체 외국인들의 범죄적 성향을 유추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 집단을 국외자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집단적 낙인이 찍히고 나면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어쩌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사건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돌발적 행동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혹은 거리에서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면, 이 역시 여느 내국인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외자로서의 외국인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각인되는 것이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낙인은 정체성을 재정의 하도록 만든다. 타인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다면,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범죄적 자기이미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범죄적 자기 이미지가 형성된 이후에 저지르는 일탈을 '이차적 일탈'이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범죄성은 안정적 특성으로 자리 잡아 버리게 된다고 낙인이론은 보고 있다 (Lemert, 1967). 더 중요한 문제는 벡커가 주장하듯이 일단 낙인이 찍힌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집단의 단위로 확대해보면, 외국인 공동체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주류 공동체와의 갈등의 소지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범죄와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편견과 차별은 국외자로서의 지위와 일탈자로서의 낙인을 손쉽고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집합적인 심리적 기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혈주의에 기반한 유독 강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큰 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종과 민족에 따라 위계적인 서열을 매기는 경향이 강하다(설동훈, 2007).[4] 2010년『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1: 213-218). 동남아시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가 42.6%인 반면, 미국인은 반대가 35.5% 유럽인은 37.8%에 머문다. 또한 동남아시아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무려 70.8%인 반면, 미국인과 유럽인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는 각각 59.0%와 61.5%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5]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들이 국외자로 정의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다분하다.

---

4) 설동훈은 중국 조선족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인종주의와 우리 사회 특유의 순혈민족주의가 결합하여 "위계적 민족성(hierarchical nationhood)"이 나타난다는 주장하며(Seol and Skrentny, 2007), 우리나라의 혼혈인 집단에 대한 차별도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해할 때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5)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중 아시아 국가 출신은 84.7%에 달한다(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2: 300).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77,954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4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중국인 중 69.4%는 한국계이다.

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정도는 그 사회의 범죄 수준에 영향 미치는 주요한 거시적 요인이라는 것이 범죄학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아노미 이론을 주장한 머튼은 범죄의 사회적 요인으로 불평등구조의 역할을 강조하였고(Merton, 1938), 유사한 이론적 입장에서 많은 범죄학자들이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서는 범죄 지표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살인율 통계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살인율이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발견되어왔다(Krohn, 1976; Braithwaite and Braithwaite, 1980; Messner, 1980; 1982; 1986; LaFree and Kick, 1986; Krahn et al., 1986; Neapolitan, 1998; Lee and Bankston, 1999; Lee, 2001; Pampel and Williamson, 2001).

그런데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따른 경제적 차별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함께 경제적 차별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메스너(Messner, 1989)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사회적 집단에 따른 경제적 차별은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소득 불평등보다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경제적 차별이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Messner and Rosenfeld, 1997). 따라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경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범죄율은 경제적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이 저지르는 범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수집단에 의한 소수집단의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수집단의 범죄율도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결국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러한 영향이 높은 범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다(Blau and Blau, 1982; Balkwell, 1990; Messner and Golden, 1992).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상당 정도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신분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낙인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민공동체가 확대 · 정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범죄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공동체의 차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공동체와 사회적 차별

공동체의 범죄 통제효과에 대한 논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사실 범죄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 내의 사회 연결망이 규범적 행동을 장려하고 범죄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가 되는데, 공동체 내 구성원이 이질적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그러한 능력은 일반적으로 약화된다(Shaw & McKay, 1942; Sampson & Groves, 1989).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질적인 인구 구성이 사회 연결망의 형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질적일 때 그들 사이의 연결망 형성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성원이 이질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사회 연결망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사회해체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 외국인 공동체 내의 사회 연결망 형성의 측면과 함께 외국인 공동체와 내국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 연결망 형성의 측면을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외국인 공동체는 외국인 범죄의 통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낯선 이국땅에 형성된 이주민의 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회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출신국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한다. 낯선 환경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은 강하게 묶어주는 기능을 할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는 감정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이유에서도 매

우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미시적 원인의 측면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인 공동체는 외국인의 사회유대 형성의 중심축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공동체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

일탈적 하위문화의 형성을 설명하는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1960)의 이론은 외국인 공동체의 연결망이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음으로 보여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공동체는 사회적 성공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됨을 경험하면서 체제의 불공성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과 믿음이 집합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주류 사회의 지배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 하위문화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는 방식을 구현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해당 공동체의 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오히려 비행과 범죄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신동준, 2010). 따라서 주류 사회의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규범적 생활을 중심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이 조직화되는 것은 방해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 공동체와 주류 사회구성원인 내국인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외국인 범죄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상당 부분 결정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이방인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 혹은 이민자 공동체는 그들의 사회통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주류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과 갈등하며 전체 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방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능할지는 주류 공동체의 편견과 차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지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흑인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의 결과로 흑인공동체가 지역적으로 백인공동체와 분리(segregation)되는 현상이 미국의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인종적 분리가 흑인 폭력범죄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참고할 만하다(Peterson and Krivo, 1993; Shihadeh and Flynn, 1996).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가 특정 지역에 형성되면 그 인접 지역의 범죄율마저 높아질 수도 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공동체

내에 혹은 인접 지역에 소수집단 구성원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로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범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Heitgerd and Bursik, 1987).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연할 경우 이는 사회적 차별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종적/민족적 분리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일상화가 된 공동체에서 높은 범죄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접 공동체의 범죄율까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연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내부의 사회통합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에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더해서 노동시장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시장 자체는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이민자 정책을 고려해 볼 때 노동시장의 문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와 서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시장과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이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노동력 수급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이른바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이다. 관련 산업의 고용주 측에서는 쉽고 싸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의 단기적 고용이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이주민 노동자의 위치는 사실상 고착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상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하층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이 경제적 불평등과 결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대

부분의 외국인들은 인종/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부터 오는 불평등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박경태, 2005; 설동훈, 2009).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차별에 더해서 계급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 또한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만연할 때, 이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결국 경제적 차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견고한 불평등구조 앞에서 차별과 가난은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점하는 위치와 사회적 차별은 서로 피드백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외국인과 이민자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문제를 한층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열악한 위치는 그들의 공동체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윌슨(Wilson, 1987)은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대도시 흑인들의 일자리가 박탈되면서 흑인공동체가 게토화가 되며 가족이 해체되고 흑인집단은 최하층(underclass)로 전락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이후의 산업의 재구조화로 이러한 일자리들이 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외국인들과 그 후세들까지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들이 미국의 흑인집단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그러하듯이 최하층 계급들이 주로 거주하는 게토에서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는 외국인/이민자 공동체의 분리(segregation)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과 이민자가 토착 내국인과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상호작용할 기회가 갈수록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 공동체와 소수집단 공동체의 분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한층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통합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차별은 분리를 낳고 분리는 다시 차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노동시장은 외국인과 이민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과 이민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중 많은 수가 주류 사회의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는 탄탄해지고, 적지 않은 이민자 가족이 주류 공동체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는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성격과 범죄문제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량의 이민이 민족/인종 갈등을 낳게 되는 과정이 사회생태학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되기도 한다(Olzak, 1992). 많은 외국인과 이민자 노동력이 유입되더라도 초기에는 직업 및 직종의 분리를 통해서 그들과 주류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체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에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과 심각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민 노동자들이 숙련 노동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되거나 저숙련 노동시장에 다수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시 진입하게 될 경우, 즉 직업 및 직종 분리가 무너질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민족/인종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을 제한된 자원을 빼앗아가는 위협으로 인지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Quillian, 1995; 1996).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들 중 다수가 정주하여 우리 사회 내에 소수집단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들이 경제적 자원을 침해하는 대상으로 인지되면, 외국인/이민자 공동체와 주류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그 갈등은 폭력적 집합행동에 이를 정도로 첨예해질 수도 있다.[6)]

---

6) 사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 한 사회 내의 소수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켜 나아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겪어야 할 일종의 성장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성장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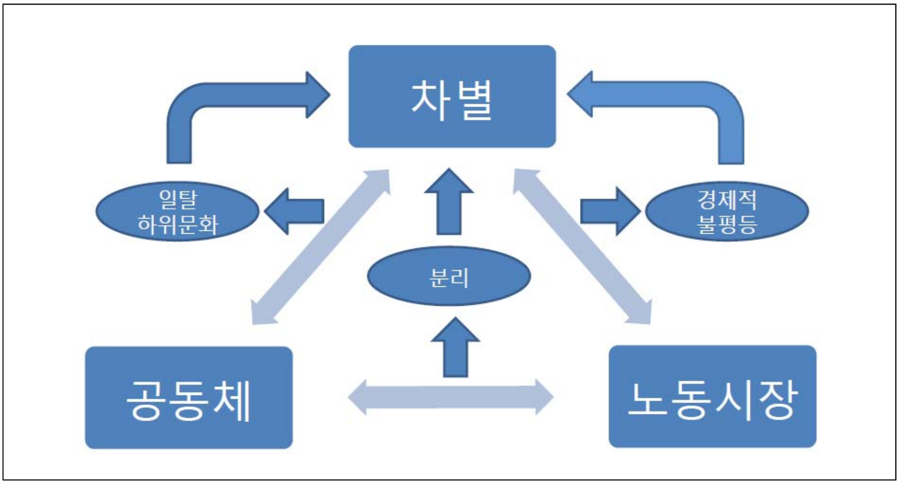
노동시장이라는 사회적 맥락은 이처럼 차별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맥락과 상호 관련되면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문제의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계급적 위치가 상당 부분 결정된다. 현재처럼 저숙련 노동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차별이 더 해질 때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며, 외국인과 이민자의 공동체와 주류 공동체 간의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외국인과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외국인·이민자 공동체는 크게 쇠락할 수 있으며 그만큼 주류 공동체와의 분리의 간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된다면 민족/인종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심한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은 폭력적 집합행동으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

4.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의 상호관련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과 원인을 <그림 1>에서처럼 도식화해볼 수 있다. 앞서의 논의에서 크게 차별과 공동체,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도출하였다. 공동체의 차원과 노동시장의 차원도 각각 외국인 범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차별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외국인이 겪는 차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외국인과 이민자의 공동체 내에서 일탈적인 하위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의 일탈적 하위문화의 존재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차별의 차원과 노동시장의 차원을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에 사회적 차별까지 더

너무나 지나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갈등의 격화로 인한 폭력적 범죄행위가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집단을 사회 안으로 통합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해지면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경제적 불평등은 한층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구조상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현실은 경제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을 연결시켜 보면, 외국인과 이민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은 주류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공동체를 더욱더 분리시킬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내국인들이 외국인과 이민자와 접촉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들’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림 1〉 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맥락과 원인의 상호관련성

이렇게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이라는 사회적 맥락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적 하위문화, 경제적 불평등, 공동체의 분리라는 문화적 · 사회구조적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문제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조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차별은 다시 공동체의 차원 및 노동시장의 차원과 결합하면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문제를 심화시키는 문화적 · 사회구조적 조건을 낳는다. 이처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 사회구조적 조건이 서로 피드백하는 순환적 인과구조를 통해 외국인 범죄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이 도식은

보여주고 있다.

IV. 외국인 범죄 대책: 형사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것이 사회통합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외국인 범죄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사실 쌍방향적 관계이다.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심각할수록 외국인의 주류 사회로의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다고 믿을 때도 역시 그들의 사회통합은 어려워진다.

아직까지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시점에 이르면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범죄문제를 형사정책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 범죄에 특히 주목하여 형사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그릇된 믿음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 실적위주의 관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과 반감을 사게 될 것이며,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어려워진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물론 적절한 형사정책이 강구될 수 있으며, 처벌과 단속 위주의 단기 대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7)]국내의 노동력 수급 상황과 혼인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경향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외국인 범죄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범죄 목적을 갖는 외국인의 입국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당연히 강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 대책에만 급급할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장기 대책에 소홀해지거나, 더 나아가서 장기 대책의 실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과도한 처벌과 선별적 단속 위주의 단기 대책으로 외국인 범죄를 다룰 경우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함으로써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마저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범죄의 현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범죄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향후 외국인 범죄문제의 장기적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시각과 범죄학이론을 통해서 진단해 볼 때, 외국인 범죄문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 대책에 주안점을 두어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장 좋은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차별, 공동체, 노동시장이라는 세 가지의 사회적 맥락이 외국인 범죄문제의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도 이 세 가지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이면서 근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그 자체로서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과 노동시장의 차원과 결합하며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적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7) 예를 들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02년 88명에서 2008년 928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법무연수원, 2009: 581).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236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마약사범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외국인 마약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2012).

한다. 외국인에 대한 심한 차별이 존재할 때,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는 분리되고 일탈적 하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사회유대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는 사회적 차별과 결합하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이민자의 노동시장 내의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중요한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순혈주의와 인종・민족의 차이에 따른 위계적 편견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과 이민자의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외국인 범죄 문제는 내국인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낙인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듯이, 외국인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부여될 경우 낙인의 당사자인 외국인들의 범죄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낙인을 부여한 당사자인 내국인들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스스로의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그들의 범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전체 사회의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외국인 범죄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내의 민족 갈등과 인종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를 통한 사회유대와 통합의 강화이다. 우선 그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심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그들이 구조적 불평등을 절감하는 조건에서 외국인 공동체의 통합은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주류 공동체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외국인 공동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인 차별과 편견이 존재할 때, 외국인 공동체의 내부적 결속력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주류 공동체와의 분리와 갈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탈적 하위문화의 형성 등으

로 외국인 범죄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는 제도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편견과 차별의 극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김정규, 2010).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기존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결합했을 때 그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저숙련 노동력에만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충원되는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미 유럽의 경우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이주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저숙련 노동자의 체계적 통제와 고숙련 외국인 노동력의 적극적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용찬, 2008).[8]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저숙련 노동력의 국내 유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만 서서 싸고 통제가 용이한 외국 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유입시킬 경우, 해당 업종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점점 더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업종에서 국내 노동력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다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야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외국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적정 수준에서 저숙련 외국 노동자의 이주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산업의 노동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내 노동력을 유인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순조롭게 이행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순혈민족주의와 위계적 민족성의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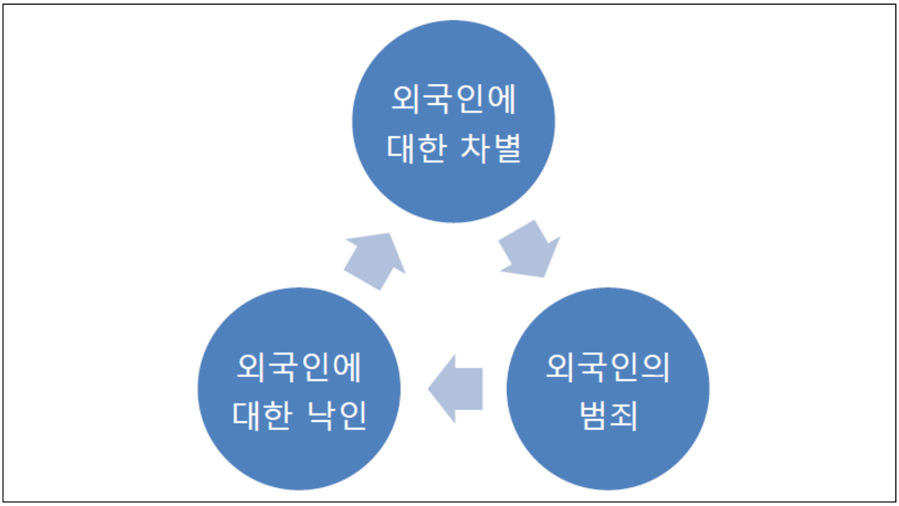
8) 특히 독일의 경우 과거 저숙련 노동력의 대량 확보에 주안점을 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결과로 이주민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커다란 사회적 과제가 된 점이 이러한 새로운 외국인 이주정책의 주된 배경이 되었다.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방향은 물론 IT 분야 등 새로운 주력 산업의 자국 노동력 부족에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공동체를 주류 사회에 편입시켜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용찬, 2008: 312).

능성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 체류자의 규모가 어떠한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인종 및 민족 갈등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하고, 다음으로 숙련 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후, 이민과 귀화를 용이하게 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적인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윤인진, 2008).

V. 맺음말

외국인 범죄문제는 실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지나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는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를 외국인 전반에 대한 비난과 낙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경향은 심히 우려스럽다. 정말로 외국인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국인 범죄 현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9] 그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와 위계적 민족성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해 무분별한 낙인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편견과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며, 외국인 범죄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2>와 같은 외국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점임과 동시에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는 출발점임을 이 글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9)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건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최영신, 2007). 상식적으로 봐도 불법체류자들은 단속과 강제출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신동일, 2010).



〈그림 2〉 외국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

사실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은 오히려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양문승 · 이선영, 2009: 199). 실제 저숙련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경우 많은 우리나라 고용주와 동료 노동자로부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설동훈, 2009: 65-66). 그리고 상당수의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의 범죄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기도 하다(양문승 · 이선영, 2009). 그러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잠재적 가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잠재적 피해자로서 오히려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미래가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분리’의 전략을 쓰는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원숙연, 2008; 최종렬, 2010). 이렇게 볼 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정주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외국인 이주민의 2세에 대한 문제도 특히 범죄문제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사회에 충분히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의 범죄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지만, 이민 2세대와 3세대에서는 문화동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내국인의 범죄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김정규・신동준, 2011: 149).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민자 후손의 범죄율이 오히려 내국인 범죄율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순혈민족주의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통합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편견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은 국제결혼가정의 2세들이 아직 대부분 어린 나이이지만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인 1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아갈 나이가 되었을 때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인종/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직업적 지위가 평균적으로 볼 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김유경, 2009). 경제적・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가정의 위치가 그들의 2세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업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경우 교육접근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학업성취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창호 외, 2007; 오성배, 2009). 만약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불평등 구조에서 하층에 머무르게 되면, 이들을 주류 사회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들의 부모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에 더해서 경제적 불평등까지 대물림된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주류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거주지는 게토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전체 사회에 심각한 범죄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구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방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이민자의 세대를 이어가며 존속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2012.『범죄자 내·외국인』(통계표), http://kosis.kr/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2012.『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범죄정보관리시스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18

김용찬. 2008.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의 수렴경향과 원인에 관한 연구: 영국과 독일 사례 연구.『유럽연구』26권 2호: 293-316.

김유경.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보건복지포럼』151호: 29-52.

김정규. 2010.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연구.『사회이론』37호: 159-200.

김정규 · 신동준. 2011.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사회이론』39호: 113-158.

박경태. 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경제와 사회』67호: 88-112.

법무연수원. 2009.『범죄백서』

설동훈.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인문연구』52호: 125-160.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사림』34호: 53-76.

신동일. 2010.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형사정책연구』21권 4호: 275-300.

신동준. 2010.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한국사회학』44권 4호: 95-125.

양문승 · 이선영. 2009.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자화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17권 1호: 191-214.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한국청소년연구』20권 3호: 305-334.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한국행정학보』42권 3호: 29-49.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

로.『한국사회학』42집 2호: 72-103.
이창호 · 오성배 · 정의철 · 최승희. 2007.『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201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최영신. 2007.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18권 3호: 1319-1340.
최종렬. 2010. 비교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사회이론』37호: 229-268.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2.『총조사인구 총괄』(통계표), http://kosis.kr/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1.『한국종합사회조사, 2010』CODE BOOK. 연구책임자: 김상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a.『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조사』CODE BOOK. 연구책임자: 정기선, 연구수행기관: 법무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b.『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CODE BOOK. 연구책임자: 이정환, 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8.
Agnew, R. and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500.
Balkwell, J. W. 1990. “Ethnic Inequality and the Rate of Homicide.” *Social Forces* 69: 53-70.
Becker, H. S. 197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Blau, J. R. and Blau, P. M. 1982. “The Cost of Inequality: Metropolitan Structure and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14-129.
Braithwaite, J. and Braithwaite, V. 1980.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Democracy on Homicid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45-53.
Cloward, R. A. and Ohlin L. E.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Y: Free Press.
Durkheim, E. 1938.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rans.) Sarah A. Solovay

and John H. Mueller. New York: Free Press.

Heitgerd, J. L. and Bursik, R. J. Jr. 1987. “Extracommunity Dynamics and the Ecology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775-787.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rahn, H., Hartnagel, T. F., and Gartrell, J. W. 1986. “Income Inequality and Homicide Rates: Cross-National Data and Criminological Theories.” *Criminology* 24: 269-95.

Krohn, M. D. 1976. “Inequality, Unemployment and Crime: A Cross-National Analysis.” *The Sociological Quarterly* 17: 303-13.

Lemert, E. 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Lee, M. R. 2001. “Population Growth, Economic Inequality, and Homicide.”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2: 491-516.

Lee, M. R. and William B. B. 1999.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9: 27-55.

LaFree, G. D. and Kick, E. L. 1986. “Cross-National Effects of Developmental, Distribu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Crime: A Review and Analysis.” *International Annals of Criminology* 95: 922-63.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Messner, S. F. 1980. “Income Inequality and Murder Rates: Some Cross-National Finding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3: 185-98.

Messner, S. F. 1982. “Societal Development, Social 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 Durkheimian Model.” *Social Forces* 61: 225-40.

Messner, S. F. 1986. “Modernizat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etal Rates of Crime: An Application of Blau's Macrosociological Theor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7: 27-41.

Messner, S. F. 1989. “Economic Discrimination and Societal Homicide Rates: Further Evidence on The Cost of Inequ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3: 597-611.

Messner, S. F. and Golden, R. M. 1992. “Racial Inequality and Racially Disaggregated Homicide Rates: An Assessment of Alternative Theoretical Explanations.” *Criminology* 30: 421-445.

Messner, S. F. and Rosenfeld, R. 1997. “Political Restraint of the Market and Levels of Criminal Homicide: A Cross-National Application of Institutional-Anomie Theory.” *Social Forces* 75: 1393-1416.

Neapolitan, J. L. 1998. “Cross-National Variation in Homicides: Is Race a Factor?” *Criminology* 36: 139-56.

Olzak, Susan. 1992. *The Dynamics of Ethnic Competition and Conflic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ampel, F. C. and Williamson, J. B. 2001. “Age Patterns of Suicide and Homicide Mortality Rates in High-Income Nations.” *Social Forces* 80: 251-82.

Peterson, R. D. and Krivo, L. J. 1993. “Racial Segregation and Black Urban Homicide.” *Social Forces* 71: 1001-1026.

Quillian, L.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586-611.

Quillian, L. 1996. “Group Threat and Regional Change in Attitudes toward African-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816-860.

Shihadeh, E. S. and Flynn, N. 1996. “Segregation and Crime: The Effect of Black Social Isolation on the Rates of Black Urban Violence.” *Social Forces* 74: 1325-1352.

Sampson, R. J. and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Seol, D. and Skrentny J. D. 2007.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Nation and its “Other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rganized by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April 20-21.

217-279.

Shaw, C. R. and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iscrimination Matters: Social Contexts of Foreign Workers' Crime Problem in South Korea as a Multicultural Society

Dong-Joon Shin*

Many people believe that foreign workers are committing many serious crimes in Korea. The fear of crime is growing in general population these days. The official statistics, however, tell us that the fear and concern about foreigners as potential criminals are not on firm ground. This paper proposes that discrimination, community, and labor market are the crucial social contexts which explains and predicts the problem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r immigrants. Given the cultural and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these social contexts interact each other and produce social conditions such as deviant subculture, economic inequality, and segregation. These conditions will increase the crime rates in minority communities as well as in majority communities and reinforce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immigrants. A vicious cycle is completed when a high crime rate among foreigners and immigrants aggravates the discrimination and labeling on them. So this paper argues that good social policy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would be the effective criminal policy for our multicultural societ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ies on the issue. First,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bolish discrimination on foreigners and immigrants. Second, we need to encourage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ies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and their integration into mainstream communities. Third, we have to improve the foreigners' condi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in labor market and control the new-coming unskilled labor from other countries at a reasonable level.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will increase the crime rate among foreigners, and in turns intensify the labeling on them. To break the vicious cycle, we need the social policies for abolishing discrimination and facilitating social mobility for second-generation immigrant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Key words : crime, foreign workers,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labeling, discrimination, community, labor market

투고일 : 12월 1일 / 심사(수정)일 :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 12월 27일